

광산구, 페트병 자원순환 활성화 '주목'

재생원료 과정 거쳐 SK케미칼에 공급, '헤어기기'로 재활용 전용배출봉투 배부 지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 앞장

광주 광산구가 민간 협업을 통한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SK케미칼을 비롯한 4개 기업과 체결한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페트병 페트병의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기업이 힘을 모아 투명페트병의 순환경제 모델 구축에 나선 것으로, 광주·전남 자치단체 중 첫 시도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쓰레기 문제의 핵심 주범으로 꼽히는 데, 그 중에서도 음식이나 음료 제품에 쓰이는 페트병은 재생·재활용이 가능한 '고급' 자원으로 분류된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국내 연간 페트병 생산량은 30여만 톤으로, 이 중 70~80%를 차지하는 것이 투명페트병이다. 광산구가 기업들과 손을 잡고 수거·선별·공급·재활용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투명페트병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한 이유다.

광산구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선별과 압축, '플레이크'라는 재생 원료 생산 등의 과정을 거쳐 SK케미칼에 공급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 225톤의 투명페트병 원료가 공급돼 미용실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헤어기기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 생산에 활용됐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광산구에서 수거한 투명페트병 719톤의 31%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SK케미칼이 폐플라스틱 원사로 제작한 체험키트를 광산구의 미래세대 자원순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등 협력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광산구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활성화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점이다. 올바른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재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투명페트병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단독주택 및 상가 등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 것에 맞춰 광주 최초로 전용 배출봉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민이 투명페트병을 다른 쓰레기나 재활용 자원과 섞지 않고 별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전용봉투에는 올바른 배출 실적을 위해 ▲비우고 헹구기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뜨려 뚜껑 닫기 등 분리배출 안내문도 그려 넣었다.

지난 3월까지 단독주택, 원룸, 상가 등 총 6만 3000세대에 101만 장의 전용봉투가 배부됐으며, 이를 통해 수거되는 투명페트병의 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각 동별로 월 1~2회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날을 열어 30개를 모은 시민에게 증광제봉투 10L 1장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재자원화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와 영역으로 민·관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버려진 자원은 계속해서 재활용하고 쓰레기는 줄이는 진정한 자원 순환 모델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남구 노대동 LH송화마을8단지 내에 마련된 코로나19 극복 '행복주택 입주인 대상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찾은 입주인들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운영합니다"

LH송화마을8단지, 행복주택 입주인 대상 취업연계 서비스

LH송화마을8단지(센터장 고미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단지 내 주거행복지원센터 커뮤니티룸에서 행복주택 입주인 대상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맞춤형 취업연계 서비스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는 코로나 19로 인한 임대주택 입주인의 고용충격 완화 등을 위해 일자리 상담사가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하고, 일자리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복지서비스 전문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수행법인 내일로'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사를 파견해 1대1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입주인이면 예약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담서비스는 경력 단절을 경험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관련 정보제공, 맞춤형 일자리 상담 지원, 구직활동 스킬 및 동행 면접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형태로 제공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온라인 주민투표'

모바일 '광산on'에서 26일까지

광주 광산구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다.

광산구의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37건, 9억 원 규모다. 내년에는 2억 원이 늘어난 11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인 '주민참여제도 확대 및 강화'에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52건의 내년

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을 접수받아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반참여형 7건, 구정참여형 11건 등 총 18건을 선정했다.

온라인 주민투표는 최종 심사를 통과한 18건 중 내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26일까지 모바일 시민참여플랫폼 '광산on'에서 진행된다.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안건 중 3건(일반참여형 1건, 구정참여형 2건)을 선택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번 온라인 주민투표 결과와 지역도

론회, 분과위원회 회의의 결과 등을 더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선정할 방침이다.

자치계획원은 이와 별도로 하반기 동별 주민총회에서 논의될 제안에서 선정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주민투표 관련 문의는 광산구 기획조정실(062-960-8036)로 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우체국 쇼핑몰 '광산구 브랜드관' 추석 특별 할인

9월 6일까지 15% 할인쿠폰

광주 광산구는 "지난 16일부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쇼핑몰 '광산구 브랜드관'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할인 행사는 코로나 19 재확산 및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설 명절, 가족의 날에 이어 세 번째다.

'광산구 브랜드관'에는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7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추석 명절 선물로 적합한 과일선물 세트, 모싯잎 송편, 한과 선물 세트, 우리밀 만두, 김부각, 마스크 등 다양

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행사기간 광산구 브랜드관 이용 시 15%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쿠폰은 품목별로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다.

우체국쇼핑몰 광산구 브랜드관은 PC나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다. PC는 우체국쇼핑몰-기획전-지역브랜드관-광산구로, 모바일은 우체국쇼핑몰-기획전 모음-광산구로 접속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 브랜드관이 추석명절을 맞아 품질 좋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며 "이번 할인 행사가 물가상승으로 힘겨워 하는 지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아동 재난안전교육

광주 광산구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의 재난 안전교육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산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아동복지시설 83곳을 대상으로 '체험으로 배우는 맞춤형 아동 재난안전교육'에 참여할 300명의 아동을 모집했다. 모집 아동들은 오는 26일까지 북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광산구는 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 지원단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제공한 아동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84개 아동복지시설에 배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동진기업, 광산구 미등록 경로당에 가전제품·백미 후원

광산구는 지난 16일 동진기업(주) (대표 양오열)이 구청장실에서 전담식을 갖고 광산구 관내 미등록 경로당 등 33개소에 가전제품과 백미 등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사진>

2020년부터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 온 동진기업은 광산구 사회적 경제 기업 5곳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백미를 지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양오열 대표는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준 동진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